'4파전' 국힘·'연임 도전' 민주…막 오른 당권 레이스

국힘, 한동훈 등 4명 각축…컨벤션 효과 기대 속 과열 우려
민주,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유력…'뻔한 전대' 될 듯

여야 차기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 하면서 '전당대회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내지는 단독 출마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흥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 정당 지지율도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결과가 뻔한 전당대회'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힘도 지나친 경쟁으로 후보간 흠집 내기 역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이 대표선거 후보로 출마해 이미 한껏 달아올랐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외에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등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는 '일극 체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당선 여부를 떠나 '이재명 전 대표에게 맞섰다'는 이미지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인영 의원을 향해 "당원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다음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번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위원 후보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김병주 의원 외에도 최고위원 도전이 점쳐지는 김민석·전현희·민형배·한준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까지 '친명' 일색이다.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이 최근 활발하게 지역을 돌며 경쟁을 펼치면서 동반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사무처 당직자와 의원실 보좌관들을 만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첫 지역 일정으로 경북 안동, 상주, 칠곡, 구미, 김천에서 잇달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심'을 공략했다.

나경원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세미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기독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력 확장에 주력했다.

다만,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과도한 경쟁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이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언급하는 등 과도한 경쟁이 불러올 '내부총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사위, 6분만에 파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2특검·4국조 동시 추진

김건희 의혹 특검·유전개발 등 국정조사…입법 청문회도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에 복귀하자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우선 목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이다.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한편,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재의결 전망에 대해선 "통과될 거라고 본다"며 "민심의 큰 흐름은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동시에 국토교통위(전세사기특별법)를 시작으로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와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등 상임위 차원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25만~3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상임위 전면 복귀 '국회 정상화'

내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며 원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 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제 망신주기식 상임위를 중단하라. 청문회를 빙자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 과방위,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오는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전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추 원내대표가 복귀해 원내 상황을 지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3선 의원들은 따로 모여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추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인철 '지방교부세율 5%p 인상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5일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현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 1조6885억원, 2020년 2조1808억원, 2022년 2조6229억원, 2024년 3조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2024년 예산액 기준으로 77조7277억원(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으로 약 16조 원 증가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